

이재명·이낙연, 추석 연휴 민심잡기 ‘호남대첩’ 사활

명, 주말~연휴 텃밭행...“대세론 탄력 쏠릴 것” 연, 광주시의회서 캠프회의...“친문 합류 임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텃밭인 호남 표심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양당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당락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리당원만 20만 명이 포진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추석 당일인 21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 경선은 25일 광주·전남, 26일 전북에서 각각 치러진다.

양 캠프 모두 호남 경선은 앞선 지역경선과는 달리 살얼음 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여론 조사상 두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최근 들어 부쩍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후보자 사퇴로 그의 ‘안방’이었던 전북(권리당원 7만5,000명)이 무주공산이 된 것도 지지율 유희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번 주말 다시 호남 곳곳을 돌며 지역민들과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사직 수행으로 이동 반경이 좁았던 만큼 주말과 추석 연휴를 활용해 호남의 바닥 민심을 굳히고 추석법상에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올릴겠다는 것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15일 “될 사람 밀어주는 호남 정서상 여전히 우리 지지층이 두껍다”면서도 “그러나 추석 민심이란 게 언제 확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정 전 총리의 사퇴가 호남 정서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이 전 대표와의 단일화설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정 전 총리의 지지층 상당수가 이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캠프 관계자는 “정세균 사퇴를 놓고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박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오전 전북도의회 의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낙연 캠프 전북 현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의 원과 시·구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회의를 연다. 이 전 대표의 발언도 주목된다.

전 대표 측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표심은 아무래도 대세론을 탄 우리 쪽에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슈퍼워크’(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 반전 드라마를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오차범위 내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무된 분위기다.

이낙연 캠프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의 원과 시·구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회의를 연다. 이 전 대표의 발언도 주목된다.

캠프는 정 전 총리의 사퇴를 계기로 전북 표심이 이 전 대표 쪽으로 대거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정 전 총리와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공개 지지를 밝히지 못한 전북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커밍아웃’이 잇따를 것이라는 기대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정세균 사퇴 효과는 물론이고 합류 시점을 고민해 온 ‘민주주의 4.0’ 등 친문 그룹들도 줄지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친문 가세는 강성 지지층이 모인 호남 여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 실현”

김영록 지사, 대선공약 건의 32개 핵심과제 발표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e-브리핑을 통해 ‘한태평양시대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핵심 키워드로, 8대 추진전략 3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발전과제 24개, 제도개선과제 8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에게 제안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꼭 채택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이은 국가 3대 축으로 ‘신해양·관광·환경 수도’ 건설과 함께 광주, 경남, 부산, 울산에 있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 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전남의 미래를 이끌 새 성장동력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그린수소 에너지 섬, 인공태양광 핵연료 소 등 4개 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등 3개 과제

를 선정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남해안 탄소소재밸트 등 3개 과제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전남도 국립과대학, 첨단의료 복합단지, 무안공항 연계 의료특화단지 등 3개 과제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 관광벨트,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등 4개 과제 ▲농어업의 융복합화를 이끌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 농산업 융복합단지,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6개 과제 ▲SOC 분야 서해안 고속철도, 서울-제주 고속철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등 5개 등이다.

32개 핵심과제 중 인공태양광핵연료 소, 전문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등 김 지사의 폭넓은 시야와 그동안의 통찰력이 담긴 새로운 구상들이 눈에 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주요 과제인 RE100 산업벨트,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 ‘다



도해선사원웨이’ 등을 반영, 다음 정부에서도 지원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립 영산강 하구관리센터

설립, 한반도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역 구축 등 지역발전 정책과제 24건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제도 마련, 농어민공익수당 국가정책화 등 8건의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19대 대통령 공약에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해경 서부정비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양항 나포부두 리뉴얼 등을 반영해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이번 과제도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 줄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므로 도민과 함께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도는 각 정당 후보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를 찾아가 설명하는 등 대선공약 반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광주종합건설본부, 태풍 대비 안전점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복상하는 제14호 태풍 ‘찬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풍수해예방을 위해 도로, 하천 등 20여개 건설공사 현장과 지하차도 등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태풍과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반약화에 따른 절토사면 토사유출 방지, 강풍에 따른 시설물 전도 방지, 안전난간 결속상태, 비상연락망 확보 등 수방관리 실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도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로, 태풍

이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시설물이 비산해 통행차 충격, 건축물 훼손 및 전력·통신선 단선 등 강풍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할 계획이다.

이정석 종합건설본부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태풍 상황 모니터링과 공사현장 출입 통제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신정훈 “조선업 고용 지원 확대 필요”

전남지역 조선업 산업·고용위기가 아직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선업 일자리는 산업위기가 한창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046개 사라졌다.

또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이 시작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76개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폐업에 이른 조선업종 업체는 325개, 휴업 업체는 29개였다. 조선업에 한정할 경우 고용 회복 수준은 약 39%까지 진행된 셈이다. 신 의원은 “정부 지원과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남 조선업 위기는 절반의 회복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만큼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피임기구 제거·훼손 처벌법 발의

성행위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스텔싱을 ‘동의가 없는 성행위’로 평가해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페론이 만든 Vending Machine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43인치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자판기입니다.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